

잡아함 127. 단법경(1)

날짜: 2월 6th, 2025

출처: <http://www.dhamma.kr/wp/?p=17756>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구라산에 계시었다. 그 때에 라다라는 시자 비구가 있었다. 그 때에 세존께서는 라다 비구에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물질로써,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거나 안이거나 밖이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좋거나 더럽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그 일체는 다 끊을 법이라고 관찰하라.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 또한 그와 같느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로서 이렇게 관찰한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 싫어하므로 즐겨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으므로 해탈하며, 해탈하였으므로 해탈한 줄을 안다. 그래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생의 몸을 받지 않을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다 비구는 듣고 기뻐하여 밟들어 행하였다.

‘이렇게 내가 끊을 법이라고 관찰하는 것과 같이 멀하는 법이라고 관찰하고 버릴 법이라고 관찰하며, 덧없는 법이라고 관찰하고 괴로운 법이라고 관찰하며, 빈 법이라고 관찰하고 <나>가 아닌 법이라고 관찰하며, 덧없고 괴롭고 <공>이요 <나>가 아니라고 관찰하고, 병든 법이라고 관찰하고 종기 법이라고 관찰하며, 가시 법이라고 관찰하고 죽일 법이라고 관찰하며, 근본을 죽일 법이라고 관찰하고, 병이요 종기요 가시요 살이요 근본을 죽이는 법이라고 관찰하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경은 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